

한국타이어, 3/4분기 영업이익 11% 감소

한국타이어가 2005년 3/4분기 매출액은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진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한국타이어는 3/4분기 매출액이 48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%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51억2600만원으로 11.1% 감소했다고 11월7일 공시했다.

영업이익률은 11.3%이다.

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77억원, 5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.4%, 15.8% 늘었다.

한국타이어 관계자는 “천연고무 가격 상승과 유가급등 등 원·부자재비가 늘어난 것이 이익 감소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11/09>